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어?》 독서지도안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는 어떻게 구별할까?

뉴스 홍수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에게 원하는 슬기로운 디지털 이야기!

- 작가_ 조이스 그랜트 글 | 캐슬린 마르코트 그림 | 한성희 옮김
- 출판사_ 풀과바람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는 일은 이제 숨을 쉬고 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정보와 뉴스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모두 믿어도 될까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어?》는 어린이들에게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알려 주고,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해 내는 능력을 키워 주는 그림책입니다. 프리랜서 기자이자 언론학과 교수인 조이스 그랜트는, 뉴미디어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를 ‘비판적 사고’로 살펴보도록 친절히 안내합니다.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 속에서 가끔 뭘 믿어야 할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과장하거나 거짓말이 섞인 동영상이나 기사, 게시물 등의 ‘가짜 뉴스’를 올리는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이 아주 많거든요. 우리가 얻는 정보와 뉴스가 잘못된 것이거나 나쁜 의도를 품은 것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책은 가짜 뉴스의 개념 정리부터 역사, 특징과 문제점, 구분법까지 체계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보며 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각을 전달합니다. 가짜 뉴스란 무엇이며 사람들이 왜 만드는지, 가짜 뉴스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진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온라인에서 읽고 본 기사를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등. 독자가 가짜 뉴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미디어 사용에 관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언들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 책으로 어린이들은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로 정보를 분석해 현명하게 진짜 뉴스와 의미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 교과 연계 : 3학년 1학기 국어 2. 문단의 짜임
 - 6. 일이 일어난 까닭
- 3학년 2학기 국어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 4학년 1학기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 4. 일에 대한 의견
- 4학년 2학기 국어 5.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
- 5학년 1학기 국어 4. 글쓰기의 과정
 - 8.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 5학년 2학기 국어 2.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 5. 여러 가지 매체 자료
- 6학년 1학기 국어 4.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 6학년 2학기 국어 5.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 지도 요점 :

사실로 믿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기사를 읽거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나요? 지어내거나 크게 과장한 이야기를 진짜인지 구별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본 ‘가짜 뉴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가짜 뉴스’는 무엇일까요?



- ① 거짓이 섞인 동영상, 기사 또는 이미지
- ② 누군가가 좋아하지 않는 뉴스
- ③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
- ④ 새로운 소식



(2) 진짜 뉴스는 기사를 쓴 사람이나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꼭 밝혀요. 이렇게 정보나 사실이 시작된 곳을 무엇이라 하나요?



- ① 속보
- ② 광고
- ③ 선전
- ④ 출처



(3) 잘 꾸며진 가짜 뉴스로 아무리 교묘하게 속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어낸 이야기와 사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 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②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 ③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 ④ 유연적으로 생각하기



(4) 다음 중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까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광고와 조회 수 등을 늘려 돈을 벌려고
- ② 새로운 소식을 알리려고
- ③ 어떤 사람이나 일에 관해 거짓말을 퍼뜨리려고
- ④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도록 만들려고



(5) 특별히 글쓴이의 관점에 동의하도록 독자를 설득하려고 쓴 기사를 기고문, 칼럼 또는 무엇이라 하나요?



- ① 답페이지
- ② 풍자
- ③ 광고
- ④ 사실



(6) 인공 지능(AI)으로 두 영상을 잘 섞어서 누군가 하지 않았는데도 말하거나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동영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 ① 선전
- ② 답페이지
- ③ 광고
- ④ 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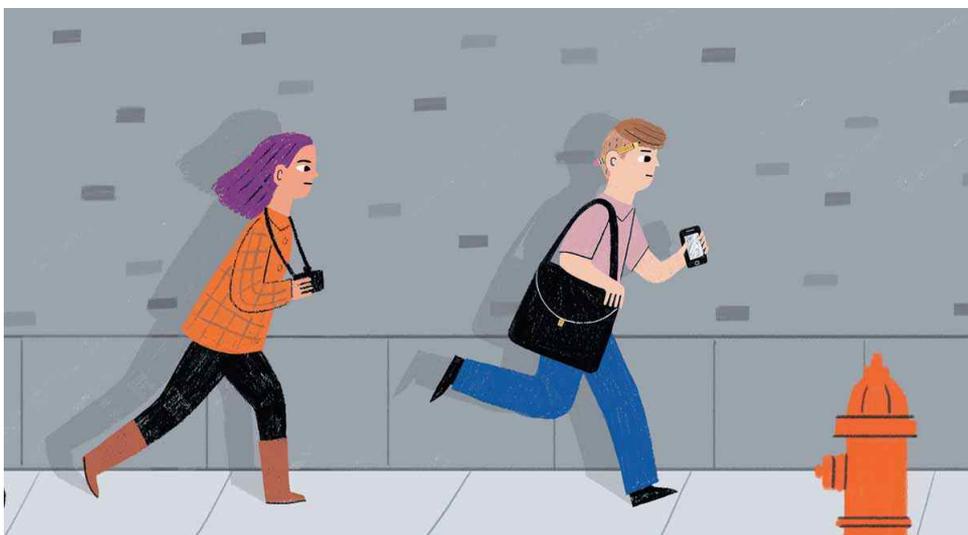


4. 확장활동

(1) SNS가 발달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겨를도 없이 가짜 뉴스가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요.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누구나 입을 수 있죠.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2) 기자는 사실을 수집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요. 뉴스를 가장 먼저 보도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기자는 사실을 얻으려고 조사하고 인터뷰하죠. 좋은 뉴스는 어떤 걸까요?



(3)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① 거짓이 섞인 동영상, 기사 또는 이미지 | (2) ④ 출처 | (3) ③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 (4) ② 새로운 소식을 알리려고 | (5) ④ 사실 | (6) ② 딥페이크

확장활동

- (1) 진짜일지 먼저 의심해 봐요.
무엇이 옳지 않은지 스스로 물어봐요. 등
- (2) 편견 없이 사실만을 잘 전달한 뉴스가 좋은 뉴스예요.
정직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뉴스가 좋은 뉴스예요. 등
- (3) 글쓴이, 사진 기자 등 출처를 꼭 확인해 봐요.
뉴스를 공유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요. 등